

블로거(blogger)들이 포착한 선유도공원 경관에 대한 해석

박선희* · 김연금**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조경작업소 울

I. 서론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를 거쳐 트위터로 발전하면서 가상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사회적 소통은 대중적 움직임이 되었고, 모두가 주목하는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의 발전 등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미지를 다루게 되면서, 이미지로의 소통 또한 인터넷 상에서 급증하게 되었다. 일반인들의 이러한 소통 대상의 하나로 '경관'이 포함된다. 자신이 경험한 경관을 시각화 도구 즉,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재구성하고, 블로그와 같은 1인 미디어에 포스팅하여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 현상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블로그에 포착된 경관을 해석하려 한다. 블로그는 공간에 대한 웹(web) 로그(log)의 출몰로,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새로 올리는 글이 맨 위로 올라가는 일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칼럼·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출판·개인방송·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라 할 수 있다.

공간과 경관을 다루는 블로거(blogger)들은 체험을 바탕으로 경관에 대한 감상, 느낌, 재해석의 피드백 과정을 담고 있다. 이들이 선택하는 경관은 다양한데, 공원, 도시의 골목길 경관, 달동네 등이 선호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조경이란 행위와 과정이 생산해 내는 구체적 결과물' 중 하나인 '공원'으로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였다. 블로거들의 경관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설계가의 의도와 블로거들의 반응 비교, 비평가들의 견해와 이용자들의 견해 비교 등을 통해 전문가 영역과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구체적 대상지로는 선유도 공원을 선정했다. 선유도 공원은 2009년 매일경제(2009.06.01)에서 '초여름 수도권 사진 찍기 좋은 곳' 중의 하나로 선정되는 등 블로거들 사이에 인기 있는 출사지로 꼽힌다.

II. 선유도 공원과 블로그

1. 선유도 공원의 특성과 대중 매체에서의 평가

선유도공원은 조선시대의 경승지에서 정수장으로, 정수장에

서 공원으로의 변화과정을 가지고 있다. 공원이화 결정되면서 2000년 현상 설계가 이루어졌다. 당시 현상 설계 공모지침에는 선유도의 한강과의 연계, 역사성,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기존 정수장 시설에 대한 고찰 등을 요구하였다.

당선자 참여자였던 성종상(2002)은 선유도공원 작품 리뷰 「선유도공원-다시 우리 곁으로 온 섬, 선유도-」에서 선유도공원 설계의 설계 컨셉과 주요 장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설계자는 가장 먼저 선유도의 입지적 특성과 땅의 잠재력을 바라보며 컨셉을 찾아갔다고 밝히고 있다. 정수장 건물을 일부 남기고 개조한 형태의 방문자 안내소와 한강전시관, 약품 침전지와 수조를 재사용한 수질정화 식물원·온실·환경 물 놀이터, 지하정수지·여과지·약품 침전지 등 지하공간이 활용되는 녹색기둥의 정원·수생 식물원·시간의 정원, 농축조와 조정조의 원형 형태를 취한 4개의 원형 공간 등이 공원 내 주요 공간이 된다. 이러한 선유도공원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도 기존 산업시설이 환경 중심의 공원으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인, 검색엔진 등으로 시장을 점유한 포털 1위로, 현재 블로그 서비스 국내 1위인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를 통해 '공원, 가 볼만한 곳'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올림픽 공원, 여의도 공원, 한강, 서울 숲, 선유도공원 등 다양한 공원이 포스팅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선유도공원은 조성 이후부터 줄곧 각종 언론과 블로거들이 선호하는 공간이다.

2003년 디지털 타임스가 선정한 '출사 베스트 7'에 들었고, 2006년 경향 뉴스(2006.09.13)에서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촬영 장소로 소개되었다. 최근 2009년 매일경제(2009.06.01)에서는 '초여름 수도권 사진 찍기 좋은 곳'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1월(2009.11.24), 같은 매체를 통해 한강명소 30선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2. 선유도 공원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의 분류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에 '선유도공원'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블로그 포스트의 수는 2010년 9월 5일 기준으로 총 23,251건이다. 이 중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 상의 정보 정확도 순으로 재배열을 거친 후 상위 1,000건을 대상으로 분류했다. 분류의 첫 번째 기준은 포스트의 목적으로, 글의 중심이 선유도 공원에 대

표 1. 선유도 공원에 대한 포스트의 검색 기준 및 결과

분류기준 1	분류 기준 2	검색 주제어	검색 수	포스트의 목적
선유도 공원에 대한 소개	선유도공원의 경관에 대한 소개	사진, 출사, 사진찍기 좋은 곳, 풍경	306	선유도 공원의 경관에 대한 소개
	공원으로서의 선유도 공원에 대한 소개	여행, 가 볼만한 곳, 장소, 추천 여행	384	공원으로서의 선유도에 대한 소개
개인의 체험 기록		다이아리, 체험, 소풍, 데이트, 나들이	292	선유도에서의 자신의 체험을 기록
기타		-	18	각종 보도 자료, 선유도 공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목적

한 소개인지, 개인의 체험 기록인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세분했고 그에 맞는 키워드로 재검색을 했다.

기타로 분류된 것은 각종 언론과 매체가 정보전달의 도구로 블로그가 이용된 것들이다. 보통 언론의 기사자료가 대부분이고, 공공기관의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여행지로서 포스팅하기도 했다. 이들의 포스트는 선유도공원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접근성과 대중성이 떨어지는 선유도공원을 홍보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키워드를 통한 검색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III. 블로거들이 포착한 선유도공원 경관의 특성

1. 특징적 경관을 다루는 블로그

사진, 출사, 사진 찍기 좋은 곳, 풍경 등의 검색 키워드를 동반하는 포스트는 보통 사진 찍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블로그에서 찾을 수 있다. 선유도와 주변의 경관이 포스트의 주요 내용이 된다. 이들 블로그에 담기는 주요 경관은 한강의 경관이 바라보이는 탁 트인 곳, 정수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생태학습장과 놀이터, 부분적으로 잘려진 콘크리트 면, 입체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각종 식물 등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첫째, 선유도공원의 지리적 특성인 ‘한강에 있는 섬’이라는 점을 포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강과의 연결성, 공원의 내부보다는 공원의 외부와 맞닿은 강변과의 연결을 포착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강공원 양화지구의 호안과 양화 선착장, 성산로를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경관은 안정감과 친밀함을 주는 한강이라는 장소적인 특성과 물의 특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블로거들은 선유도공원의 물리적 특성인 정수장의 흔적, 콘크리트와 철의 차가운 성질을 사진에 담으면서, 선유도공원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면서 멋스럽고 분위기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례로 “Which Moon”이라는 블로그의 포스트 ‘[100829]선유도공원’(http://blog.naver.com/milos78/112370536)에서는 “선유도 안은 콘크리트 구조물들 사이로 나무들과 풀이 우거져 있는 게 분위기 있다.”라는 언급과 함께 이와 관련된 사진을 실고 있다.

이는 배정환(2002)이 선유도 공원 조성 초기의 비평문에서 지적한 것과 맞닿아 있다. 그는 ‘이성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깨뜨리는 감성적인 면, 정체불명의 감각적인 면이 선유도공원을 지배’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고, ‘울퉁불퉁한 생살처럼 드러난 콘크리트 벽과 기둥, 지워지지 않는 물의 얼룩과 녹슨 자국이 전해주는 것은 쓸모없어 폐기된 산업의 잔재가 아니라 재료 자체의 물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선유도의 자연 경관이 포착된다. 선유도 공원을 주제로 한 사진 블로그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선유도에서 자라는 각종 식물들을 접사로 촬영한 것이다. 이렇듯 선유도공원의 경관을 중점적으로 다룬 블로그의 세 가지의 특징은 비교적 선유도공원의 경관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2.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다룬 블로그

다음은 이 장소가 공원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들 포스트에서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공원이라는 장소가 어떤 경관으로 비춰지는지, 또 공원으로서 선유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많이 포착되는 경관은 산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등이다. 이는 선유도 공원이 사람들에게 실외에서 여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선유도 공원을 일반 공원의 하나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공원과 구별 짓는 것이다.

먼저, 일반 공원의 하나로 보는 것을 살펴 보면, 블로그 문화 속에서 일반적 공원이라는 공간에 정의를 내려지는 보편적인 이미지다. “공원”이라는 장소의 효용가치에 대한 경관을 내포하고 있다. 선유도 공원의 통해 공원의 역할에 대해서 논한 포스트의 예로서 블로그 ‘하늘마루... 비상을 꿈꾸다!’의 포스트를 들 수 있다. “한강 위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끼고 걷다보니 낮익은 공원! 바로 선유도 공원~ 사진 출사지로도 유명한 공원~ 서울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늘 복잡하고 각박해 보이지만 않다는 곳이다. 다만 사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거... 한강을 풍경 삼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자료: http://blog.naver.com/coward10/120109902345)

표 2. 연구의 종합

대구분	소구분	글의 주 서술 내용	포착된 사진의 주요 장면
선유도공원의 특정적 경관을 다른 블로그	한강의 섬으로서의 선유도 공원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유도공원을 한강과 연관지어 명명(ex. 한강의 정적인 휴식처 선유도공원, 한강의 섬 선유도공원, 한강 선유도공원 둘러보기) · 강과 섬의 지리적 특성 강조(ex. 나뭇가지 사이의 강바람에 나도 신선이 될 수 있는 곳 선유도공원) · 한강이 보이는 경관, 선유교와 한강변이 보이는 경관을 포착 	
	콘크리트 구조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와 같은 차가운 물성의 경관을 포착 ·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공원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기록(ex. 선유도 안은 콘크리트 구조물들 사이로 나무들과 풀이 우거져 있는 게 분위기 있다.) 	
	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유도공원 내의 각종 식물을 포착한다. · 식물을 포착하며 감상(ex. 아주 작은 공간에 피어났지만 참 곱다, 꿀을 모으는 꿀벌님 카메라 셔터 소리에도 애지간해선 깜짝도 안해요 등) · 연꽃에 대한 감상 	
'공원'으로서 의 가치를 다른 블로그	일반적 공원으로서 의 선유도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 휴식, 데이트장소로서 선유도공원을 포착(ex. 사람 사는 곳, 한강을 풍경삼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다른 공원과는 다른 선유도 공원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느 공원과 다른 독특한 구조에 대한 관심(ex. 다른 공원들처럼 너른 벌판이나 잔디밭은 없지만 독특한 구조와 재미있는 조명들이 있어...) · 정수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을 포착 · 재활용 공원이라는 공원의 성격에 의미를 부여(ex. 버려진 정수장 풍경을 부수고 철거하는 대신 정수장의 모습을 선유도 공원 풍경에 녹아들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 경험을 다른 블로그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으로 보고 만지는 생태체험장으로서 선유도공원, 긍정적인 반응(ex. 모든학교의 수생식물을 찾아라 체험학습, 동대문 나눔연대의 체험학습 모습 등을 기록) 	
	자발적인 공원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프레, 사진 등 자발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동호회의 모습 · 일기형식으로 선유도공원에서의 자신의 일상을 기록(ex. 아기와 보낸 시간, 동호회 활동, 저녁 산책 이야기 등) 	

선유도를 다른 공원과 구별 짓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공원이 재활용 공원이라는데 주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선유도 공원의 형성 배경을 통해 공간의 역사, 도시 설계의 한 결과물, 재생된 공간이라는 경관 형성의 맥락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공원 경관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들에게 포착된 너른 들판, 잔디밭 경관이 아닌 재활용의 흔적을 담은 공원의 경관은 공원의 경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한다. 일례로 블로그 "놀이처럼 살아가기"의 포스트 '서울산책: 선유도공원'(http://lemonsing.tistory.com/99)에서는 여느 공원과 달리, 정수장의 흔적 때문에 독특한 구조를 띤다는 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시멘트 기둥과 담쟁이 경관 등에서 색다른 재미와 만족을 느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공원보다 더 재미있는 공원'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3. 선유도공원에서의 개인적 경험을 다른 블로그

앞의 두 형태의 블로그가 경관 포착과 정보 제공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전제로 하여서 '미디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선유도공원에서의 경험을 다루고 있는 세 번째 부류의 블로그는 일상 체험을 주관적으로 기록한 "일기"의 성격이 강하다. 즉, 선유도 공원이 글과 이미지의 주인공이라기 보다는 자신이나 동행한 이가 글과 이미지의 주인공이 되고 선유도 공원은 배경이 된다.

물론 이들도 선유도공원의 물리적 경관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공원에서 느끼고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일상과 추억의 경관이다. 이들의 포스트는 선유도 공원이라는 공간에서 사건이 생기면서 자기만의 추억이 새겨

지는 과정을 포착하고 있다. 이들 포스트는 공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선유도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체험학습, 생태학습의 경험담을 담고 있는 블로그에서는 이 공원이 유익한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곳에서 자녀들이 체험하며 즐거워한다는 점 등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학습의 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경험 그 자체를 포착하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이 기록한 체험의 경관은 공원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단순한 ‘쉬’에서 점점 다양하고 깊이 있는 ‘체험’ 혹은 ‘놀이’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두 번째, 특정 프로그램의 참여보다는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고 이를 기록한 것들이다. 특히 이러한 블로그에서는 아기사진을 담긴 것들이 많다. 젊은 엄마들이 블로그를 통해 육아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IV. 결론

블로거들의 경관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읽어낼 수 있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미지 활용에 능한 근래의 정보문화 속에서 블로거들은 자신들만의 시선으로 장소를 재발견하고 있었다. 두 번째, 경관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에서 벗어나 해석하고 비평하며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관에의 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경관에 대한 접근과 해석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세 번째 전문가와의 간접적 소통이다. 블로그의 글들은 폭이 넓고 예리했는데, 사소하게는 즐거웠던 공원 나들이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진지하게는 설계자가 의도했던 바를 간파한 것도 있었다. 한강과 재활용 공원에 대한 가치 부여, 노출된 정수장의 구조물과 자연식생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기록하는 포스팅에서 본디 설계의도가 잘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공원에의 접근성이나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 시스템의 내용에까지 접근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으로서 일인 미디어의 기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사진을 주제로 한 각기 다른 블로그에서 같은 경관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였다. 볼프강 벨

슈(2005)는 정보가 매체적 프레젠테이션 가능성의 관점에서 연출된다고 했는데, 이는 블로그의 포스팅에도 적용된다. 즉, 포스팅 자체가 인공적인 행위이므로 극화시키는 면이 없지 않다. 이는 선유도공원을 체험하기보다 이미지 위주의 반복적인 공간의 재생산을 야기해 결국 경관 체험 자체의 한계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는 현상학에서 말하는 순수한 경험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블로거들은 선유도공원이라는 장소적 맥락에서 경관을 포착하기보다 어디선가 보았던 장면을 찾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미지로서만 경관을 치부해 버리는 한계점을 낳고 있는 것이다. 정보 문화 속 이미지 문화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지로 사람과의 소통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이미지 화장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문화가 사람들의 태도를 경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시작되었다. 연구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공원이 더 이상 사람이 이용하거나 감상하는 식의 일방적인 관계의 장이 아니다’라고 한 선유도공원의 설계자의 말처럼(성종상, 2002), 경관 역시 더 이상 사람들이 그저 눈으로 보거나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림’이 아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 관계의 방식과 표현은 시대의 문화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증가할 것이다. 또한, 경관의 주체층이 일부 전문가집단이나 소수의 집단에서 진정한 주체층인 대중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현상 속에서 보다 성숙한 경관과 경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경관을 주요한 매체로 삼고 있는 조경가들은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인용문헌

1. 경향 뉴스(2006.09.13)
2. 매일경제(2009.06.01)
3. 매일경제(2009.11.24)
4. 배정환(2002) 시간의 정원, 발견의 디자인: 선유도공원이 전하는 말. 환경과 조경 7(171): 84-89.
5. 성종상(2002) 선유도 공원. 환경과조경 7(170): 50-57.
6. 디지털 타임스, 2003.06.05
7. 심혜련 역(2005) 미학의 경계를 넘어, Welsch, Wolfgang, 서울: 향연.
8. <http://blog.naver.com/coward10/120109902345>
9. <http://blog.naver.com/milos78/112370536>
10. <http://lemonsigtistory.com/99>